

『해동잡록』에 나타난 권별의 역사인식*

박인호**

Ⅰ 차례 Ⅰ

- I. 머리말
- II. 『해동잡록』의 편찬과 서술
 - 1. 편찬자와 편찬 배경
 - 2. 서술 체제와 자료
- III. 『해동잡록』의 내용과 역사인식
 - 1. 상고사인식
 - 2. 인물인식
- IV. 맺음말 -사학사적 의의-

【국문초록】

이 논문은 權鼈이 편찬한 인물 사전인 『海東雜錄』의 사학사적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해동잡록』은 크게 역사편과 인물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에서 권3까지 역사편에서는 상고기에서 고려까지를 다루고 있다. 내용은 단군에서 삼한까지의 上古紀의 왕조 변화를 적고, 이어 신라의 박혁거세에서 고려 공양왕까지 역대 왕의 업적을 적고 있다. 그리고 弓裔·甄萱과 外寇를 적었다. 권4에서 권14까지는 인물편으로 총 1,101명의 인물약전이 수록되었다.

15세기에는 관부에서 편찬한 『東國通鑑』이 역사 책의 전범이었으나, 16-17세기에는 이를 사람과 자신의 관점에서 정리한 사략형 사서가 역사서의 대표적 형태로 나타났다. 『해동잡록』의 역사편은 이들 사략형 사서와 마찬가지로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여 참조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해동잡록』 역사편의 초기 국가 기록에서

* 본 연구는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임.

** 금오공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는 『삼국사기』의 정사 기록 외에 『삼국유사』, 『동명왕편』, 『제왕운기』 등 사서와 『동국여지승람』 등 정부 자료에서부터 족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록을 참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상고사 기술을 풍부하게 하였다. 『고려사』에 근간한 고려 왕조의 기술에서도 부친 권문해가 수집한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었다.

『해동잡록』 인물편에서는 비록 사전적 형태를 취하였어도 인조반정과 이어지는 호란을 겪은 당시 영남지역 선비들의 인물인식이 투영되어서 절의를 지킨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성리학을 도입하였던 인물을 크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인물의 끝에는 효자편을 두어 효행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도덕적이고 윤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직전 시기에 나온 『동사찬요』의 인물 설정이나 도덕적 평가와 유사하다. 그리고 『해동잡록』은 역사편과 인물편을 합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통사가 된다.

『해동잡록』의 단선적이고 정통적인 상고사인식과 절의나 도덕 그리고 효행을 숭상하는 인물인식은 영주에서 간행된 유희령의 『표제음주동국사략』이나 오운의 『동사찬요』 등 역사서나 부친인 권문해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 등장하는 이유장, 홍여하 등 역사학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영남지역 남인학파가 가지는 역사인식과 인물인식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 책이 이후 지역 사회에서 계속 이용되었다는 것은 영남지역 퇴계학파가 가지는 역사인식의 원류적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권별, 권문해, 『대동운부군옥』, 『해동잡록』, 『동사찬요』, 『동사절요』

I. 머리말

조선중기 역사학에서 보이는 특징적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백과전서류의 편찬이다.¹⁾ 魚叔權의 『攷事撮要』(1554년 편찬, 1585년 간행) 이래

1) 조선중기 역사학의 동향에 대한 개관은 박인호, 『한국사학사대요』 3권, 이회, 2002.

많은 백과전서류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하였다. 백과전서류가 나오게 된 이유로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필요성, 역사적 근거를 고전에서 찾으려는 전거의식의 심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우리 것에 대한 애정과 지식 욕구, 사실에 대한 고증적 연구의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백과전서류의 편찬은 문·사·철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보려고 한 점, 과거의 사안을 유형별로 정리함으로써 특정 영역이나 제도의 역사적 발전을 살피고 있는 점, 다양한 자료를 통한 사실 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서 역사학에서는 새로운 서술 형식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중기 성리학이 지배사상으로 등장하면서 역사학에서는 도학적 역사의식의 구현이 시대적인 과제로 등장하였다. 성리학을 현실사회의 기본적인 사상으로 정립하려는 주자학자들은 성리학적 도덕사관을 교육하고 심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역사학 방면에서는 개인학자들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성리학적 이념을 널리 보급하려는 의식이 작동하면서 사략형이나 도표형의 간략한 사서가 나타났다. 또한 성리학적 도덕 윤리의식을 사서에 투영시켜 집필하려고 하였다. 이 시기 사서에는 성리학적 포폄과 교훈적 의식이 사서에 강하게 표출되어 나타났다.

그런데 백과전서적 학문의 경향과 성리학에 바탕한 교훈적 역사의식이 결합되어 여러 종류의 인물사전이 조선중기 퇴계학 계열의 학자들 사이에서 편찬되었다. 그 가운데 예천 지역 궁벽한 죽림에서 살았던父子가 이러한 학문 활동에서 큰 업적을 남기었다. 아버지인 權文海(1534~1591)는 일종의 음운 사전이자 고사와 민속에 대한 종합 사전인 『大東韻府群玉』을 편찬하였으며, 아들인 權鼈(1589~1671)은 인물 백과사전인

『海東雜錄』을 편찬하였다.

여기서는 이 시기 권벌이 속하였던 퇴계학과를 중심으로 17세기 영남 지역의 학문적 동향과 관련하여 인물사전인 『해동잡록』 편찬이 가지는 사학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²⁾

II. 『해동잡록』의 편찬과 서술

1. 편찬자와 편찬 배경

『해동잡록』의 편찬자는 권鼈(1589-1671)이다. 본관은 醴泉, 자는 壽甫,³⁾ 호는 竹所이다. 예천 권씨는 선대로부터 대대로 예천 용문면 저곡동에서 세거해왔으며, 증조부인 권五常이 금당실 유전에서 죽림동으로 이거하여 현재까지 세거하고 있다. 조부는 贈參議 권址이며, 조모는 동래 정씨 鄭纘宗의 딸이다. 아버지는 草簡 권文海(1534~1591)이었으며 어머니는 繼配인 咸陽朴氏로 主簿 朴芝(?-1593)의 딸이다. 권문해는 첫 부인이었던 현풍 곽씨 郭明의 딸 사이에서 후사가 없이 1582년 상처하고서, 1584년 재혼하여 1589년 아들 권鼈을 얻게 되었다.⁴⁾

2) 권벌에 대한 선행 논문을 조사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권문해에 대해서는 시문학이나 『대동운부군옥』 문헌에 대한 연구는 있으며, 이 연구와 관련된 현실인식이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석사학위논문이 있어 참고가 된다.

김주부, 「초간 권문해의 시국비판과 역사인식」, 안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56쪽.

박미라, 「대동운부군옥으로 본 초간 권문해의 역사인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83쪽.

3) 介甫로 나오는 자료도 있다(崔峴, 『訥齋先生文集』 卷9, 「書」, 〈答權介甫(鼈)書〉).

4) 권문해는 1556년 寒樓巖으로 찾아가 이황의 제자가 되었으며, 당시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던 인물로 趙穆·柳成龍·金誠一·金宇顛 등과 친교가 있었다(황위주, 『예

아버지 권문해는 우리 나라의 제반 사항을 韻別로 분류하여 운 아래에 내용을 붙여 『大東韻府群玉』을 저술하였다. 권문해는 권별이 3살 때 사망하였다. 권별은 아버지의 학문을 이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아버지의 저술인 『대동운부군옥』 3질 가운데 2질이 유실되자 남은 1질을 바탕으로 鼎山洞內의 善寫者들을 모아 정사하도록 하여 鼎山書院에 소장케 하였다.⁵⁾ 권별은 『대동운부군옥』의 선사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부친의 백과적 학문을 잇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권문해와는 달리 권별은 별도의 자신의 문집을 남기지는 못하였다. 다만 권별은 평생 동안 일기를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2년치의 기록만 남아 있는 『죽소부군일기』를 남겼다.⁶⁾ 권별은 평생 벼슬을 하지 못하고 지방의 향교에서 행정을 담당하면서 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스승은 여럿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일기에 의하면 省吾堂 李介立(1546-1625)은 확인되고 있다.⁷⁾ 그리고 고종사촌 자형인 崔暉(1563-1640)도 연배로 보아 권별을 지도하였던 위치에 있었다. 권별과 최현의 인연은 고모가 金復一(1541-1591)에게 출가하였으나 일찍 죽자 생질들을 권문해가 보살폈으며, 질녀를 최현에게 출가시켰다.⁸⁾ 그런데 최

친 지역의 퇴계학맥,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사, 2004, 161-162쪽).

5) 권문해, 『大東韻府群玉』, 『跋』(『대동운부군옥』, 이회문화사, 1991, 2쪽). “嘗淨寫有上中下三本 昔鶴峯金先生長玉堂 取上本至京師 將以啓達而刊行之 未幾失於南亂 其中本則寒岡鄭先生借去 而爲六丁所取 將今之存者只下本 公之胤裔爲鼎山洞主 會境內善書士友 謄出一本 藏于院 蓋懼下本之或未免災失 而遂爲千古之恨也 一 金應祖謹識”

6) 권문해와 권별은 부자가 일기를 남긴 것으로 지명한테 부친이 남긴 『초간일기』는 권문해가 47세이던 1580년부터 1591년까지 12년의 기간 동안 기록한 일기이며(『국역 초간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12), 『죽소부군일기』는 권별이 37세이던 1625년에서 1626년까지 2년 동안 쓴 일기이다(『국역 죽소부군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12).

7) 『국역 죽소부군일기』, 1625년 9월 20일, 2012, 103쪽.

8) 권문해는 1587년 10월 29세의 젊은 나이로 죽은 생질녀인의 죽음을 애도한 〈哭崔

현은 1618년 선산의 읍지인 『一善志』를 편찬하였으며, 권별은 자신의 저술에 이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⁹⁾ 게다가 권별은 1626년 강원도관찰사가 된 최현의 초청으로 그해 10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강원도 유람을 다녀왔다.¹⁰⁾ 따라서 최현은 권별에게 고종사촌 자형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나 혹은 저술의 계승관계로 보아 스승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인척관계에 있는 인물을 살펴보면 권문해의 첫 부인이었던 곽씨 부인의 외사촌의 아들이 鄭經世(1563-1633)이다. 고모부 김복일의 손자인 金是振(1595-1654), 金是桶(1597-1664) 형제와는 가까이 살며 교류하였으며, 그 외에도 權克譜(1585-1673), 朴希文(1586-1659), 申悅道(1589-1659), 鄭榮邦(1577-1650), 李尙彦(1597-1666) 등과도 교류가 있었다.¹¹⁾ 권별의 부인은 안동 권씨 權來의 딸이었다. 權來는 冲齋 權機의 손자이다. 권별은 처가가 봉화의 西谷에 있어 일기에 의하면 유곡 출입 기사가 나온다. 그리고 敬庵 盧景任의 아들 盧世讓은 權鼈의 딸과 결혼하여 노경임과 권별은 사돈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노경임은 17세기 초 선산의 읍지인 『嵩善誌』를 편찬하였다. 노경임의 사위가 『海東文獻總錄』을 편찬한 金倬(1597-1638)였다.¹²⁾ 김휴는 여헌 장현광의 제자로 우리나라의 최초 전문 해제서인 『해동문헌총록』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권별은 『해동잡록』에서 『해동문헌총록』을 인용하고 있어¹³⁾ 이러한

靦內子) (『草潤集』 권2 및 『국역 초간일기』, 499쪽)를 남기고 있다.

9) 『해동잡록』 하, 〈李孟專〉, 태학사, 1986, 371쪽.

10) 『죽소부군일기』, 1626년 10월 4일에서 11월 19일, 195-215쪽.

11) 『죽소부군일기』, 1625년 2월 23일, 55쪽; 1626년 3월 22일, 143쪽.

12) 박인호, 「해동문헌총록에 나타난 김휴의 학문세계」, 『선주논총』 9, 금오공대, 2006; 『여헌학의 전개와 수용』, 보고사, 2010, 332-349쪽.

13) 『해동잡록』 중, 〈崔濬〉, 312쪽, 『해동문헌총록』 134쪽; 『해동잡록』 중, 〈崔謙〉,

인척관계가 백과적 저술의 편찬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권별은 『대동운부군옥』을 참고하면서 인물에 대한 부분을 독립시켜 『해동잡록』을 편찬하였다. 초간 권문해가 지은 草澗精舍에서 본격적으로 집필하여 완성하였으나 생전에는 공간되지 못하였다.¹⁴⁾ 후손인 權進洛 등에 의해 1798년(정조 22) 판각이 시도되었으나 이마저도 완수하지 못하고 일부만 판각되었을 뿐이었다. 필사본으로 남아 있었으나 경향 각지에서 그 이름이 높아 영·정조대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야사자료집인 『大東野乘』에 『해동잡록』의 본조 인물편 부분이 수록되어 이 책의 존재가 널리 알려졌다. 『해동잡록』은 현대에 들어와서야 3책으로 영인 간행되었다.¹⁵⁾

원본은 권별의 종손인 權榮基의 소유인 유물 보관처인 百承閣에 전하며, 정조대의 목판이 함께 있다. 권별이 적은 일기인 『죽소부군일기』와 함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외에 후대의 전사본으로 규장각에 14권 7책, 고려대에 14권 14책의 이본이 있는데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¹⁶⁾

『해동잡록』에는 서말이 없어서 편찬 목적과 목표를 잘 알 수는 없으

343쪽, 『해동문헌총록』 129쪽. 또한 김휴는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에 대해서도 미탈고이지만 공부한 것이 가장 많다고 적고 있다(『해동문헌총록』, 학문각, 1969, 524쪽).

14) 『해동잡록』을 편찬 완료한 시기는 홍여하가 1670년에 쓴 발문(夫陰竹壘序其子復春韻府時 蓋年八十四歲矣 今竹所公人事爲壽年 大約相符 似非偶然者)에서 죽소공이 한 일이나 나이가 비슷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권별(1589-1671)은 생애 말년까지 계속 수정하면서 편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5) 『해동잡록』 상·중·하, 태학사, 1986.

16) 서울대 규장각 14권 7책(奎 5663), 고려대 도서관 만송문고 14권 14책(만송 B3 A63).

나 편찬의 시작은 권문해가 편찬한 『大東韻府群玉』을 정리하면서 음운별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우리나라 역사와 인물을 한 곳에 모아 열람에 편리하도록 하는 데서 출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별은 『대동운부군옥』에 수록된 여러 나라를 역사편으로 모아 국가의 계승과 역대 왕들의 업적을 정리하고, 이어 운별로 기록된 인물조 하의 내용을 仕宦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별하고 또한 그들에 대한 일화를 보충하여 『해동잡록』을 정리하였다.

그런데 권별이 이 책을 편찬하게 된 것은 사림세력의 성장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사회가 거둬되었던 정치적 상황을 통해 사림세력들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새롭게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朱子學者들이 각종 윤리의식과 도학적 역사인식을 향촌사회에 확산시키려고 하였다. 역사학에서도 이전의 官에서 만들었던 通鑑的 역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도덕적 관점에 따라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역사를 보려는 사략형 사서가 나왔다.¹⁷⁾

또한 인물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는 인물열전 내지 인물서가 나오게 되었다. 고려시기에서 조선초기까지의 인물에 대한 기술은 대체로 기전체 사서의 열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조선초기에는 명현록이나 언행록 등이 새로이 편찬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때만 하더라도 인물에 대한 평가 기준이 기존의 한당 유학의 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주자학을 체득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사림세력이 등장하면서 도덕과 윤리의 측면에서 인물평가 기준이 매우 엄격하였으며, 고려 말 기사에서는 절의를 지킨 인물들

17) 정구복, 「16-17세기의 사찬사서에 대하여」, 『전북사학』 1, 1977; 『한국근세사학사』, 경인문화사, 2008, 131-157쪽.

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이 시기 영남지역 사림 세력에 의해 편찬된 『동사찬요』, 『동사보유』, 『휘찬여사』 등 사서의 「열전」편에 기술된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물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명신언행록, 유선록, 사우록 등 다양한 형태의 인물 기록이 수집되기 시작하였다. 16세기에서 17세기 초에는 周世鵬의 『동국명신언행록』, 柳希春의 『유선록』, 柳成龍의 『동국명신언행록』, 金堉의 『해동명신록』 등 명신언행록류가 나타났으며, 권별이 『해동잡록』을 편찬하였던 17세기 후반에는 鄭經世의 손자인 鄭道應(1618-1667)이 『昭代名臣行蹟』을 편찬하였다.¹⁸⁾

『해동잡록』은 이러한 성리학적 윤리의식과 도덕적인 평가가 확산되는 시기에 비록 예전의 궁벽한 산골에 있었던 권별이 편찬하였지만 그의 가계나 친우관계로 보아 당시 퇴계학과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인물에 대한 인식관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유성룡, 정도응을 비롯하여 권별 등 퇴계학과 계열 학자들이 인물에 대한 저술을 지속적으로 편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인물상의 모습을 책을 통해 구현하려고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2. 서술 체재와 자료

백승각의 『해동잡록』은 전통시대에 간행되지 못하고 14권 14책의 필사본으로 남아 있었다.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으며 거의 동일한 크기로

18) 鄭道應(1618-1667)은 본관은 쑤주, 자는 鳳輝, 호는 無忝齋·休庵이다. 조부는 鄭經世, 부는 杺이다. 생의 대부분을 향리인 咸昌 栗里에서 보냈다. 문집으로 『무침재선생문집』 4권 2책이 있다. 『昭代名臣行蹟』은 鄭道應이 편찬한 인물언행록으로, 주자의 명신언행록 체제에 따라 명신들의 언행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본가에 남아 있다가 1912년 鉛活字本으로 간행되었다.

분책되어 있다. 그런데 필사본의 필적을 보면 원래의 글씨에 다른 필적으로 많은 보충이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이 예천 종가에 보존되어 오면서 행간에 많은 추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는 각 가문의 후예들이 본서의 판각시 조상의 일이 조금이라도 자세히 알려지기를 위하여 추보 해주기를 요청하면서 발생하였다.¹⁹⁾ 여기서도 일단 원문의 동일 필적만 권별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보고 그 외의 가필된 내용은 제외하고서 정리하였다.

종가에 남아있는 『해동잡록』은 범례나 서문이 없어 편찬의 기준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아래의 표는 『해동잡록』의 전체 구성과 인물을 정리한 것이다.

권	수록범위	내용<()안의 수는 수록된 인명 수임>
1	檀君朝鮮 箕子朝鮮 衛滿朝鮮 三韓 新羅 駕洛國 高句麗	檀君朝鮮 箕子朝鮮 衛滿朝鮮 三韓 : 馬韓 辰韓 下韓 新羅 : 赫居世 南解王 儒理王 脫解王 婆娑王 祇摩王 逸聖王 阿達王 伐休王 奈解王 助賁王 沾解王 味鄒王 儒禮王 基臨王 訖解王 奈勿王 實聖王 訥祇王 慈悲王 昭知王 智證王 法興王 眞興王 眞智王 眞平王 善德女主 眞德女主 太宗武烈王 文武王 神文王 孝昭王 聖德王 孝成王 景德王 惠恭王 宣德王 元聖王 昭聖王 哀莊王 憲德王 興德王 僖康王 閔哀王 神武王 文聖王 憲安王 景文王 憲康王 定康王 眞聖主 孝恭王 神德王 景明王 景哀王 敬順王 駕洛國 : 首露王 高句麗 : 東明王 瑠璃明王 大武神王 閔中王 慕本王 太祖王 次大王 新大王 故國川王 山上王 東川王 中川王 西川王 烽上王 美川王 故國原王

19) 이에 따라 권씨 종가에서는 이러한 삼입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을 미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문의 동일 필적 이외는 모두 제외하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이수봉, 『해제 해동잡록』, 『해동잡록』 상, 4쪽).

		小獸林王 故國壤王 廣開土王 長壽王 文咨王 安藏王 安原王 陽原王 平原王 嬰陽王 榮留王 寶藏王
2	百濟 高麗	百濟 : 溫祚 多婁王 己婁王 盖婁王 肖古王 仇首王 古爾王 責稽王 汾西王 比流王 契王 近肖古王 近仇首王 枕流王 辰斯王 阿莘王 腆支王 久爾辛王 毗有王 盖鹵王 文周王 三斤王 東城王 武寧王 聖王 威德王 惠王 法王 武王 義慈王 高麗 : 太祖 惠宗 定宗 光宗 景宗 成宗 穆宗 顯宗 德宗 靖宗 文宗 順宗 宣宗 獻宗 肅宗 睿宗 仁宗 毅宗 明宗 神宗 熙宗 康宗
3	高麗 弓裔 甄萱	高麗 : 高宗 元宗 忠烈王 忠宣王 忠肅王 忠惠王 忠穆王 忠定王 恭愍王 辛禰 辛昌 恭讓王 弓裔 甄萱 外寇 : 靺鞨 契丹 蒙古 倭
4	新羅 高句麗 弓裔 百濟	新羅 : 金舒玄 金庾信 金元述 金三光 金允中 金后稷 金忠恭 金昕 金周元 金生 金春秋 金仁問 金巖 金信忠 金盤屈 金令胤 金陽 金欽運 金旁他 昔于老 朴堤上 道說 冬陀川 邯峽許 寶用那 未斯品 箒項·貴山 劉仁願 裂起 王巨仁 居道 實兮 崔致遠 印觀 李純 讚德 奚論 薛鬪頭 任强首 訥催 駉徒·逼實 斯多含 勿稽子 丕寧子 張保臯 貴金 大世 表訓 沈那·素那 官昌 倡郎 元曉 薛聰 罷郎 匹夫 金異斯夫 竹竹 膺廉 調信 鼻荊 孫順 李恣言 崔伉(66) 高句麗 : 乙支文德 王山岳 高福章 解明 松屋勾 發歧 溫達 明臨 荅夫 扶芬奴 得來 怪由 鄒敦素 乙巴素 伯固 乙弗 高正義 密友 紐由 倉助利 無恤 安市城主(21) 弓裔 : 王隆 尹瑄 阿慈介(3) 百濟 : 都彌 階伯 黑齒常之 斯紀 成忠 興首 常永 遲受信(8)
5	高麗	高麗 : 權幸 權守平 權躡 權咄 權溥 權準 權廉 權思復 權軫 權闡 權敬中 權漢功 權適 權和 羅益禧 羅興儒 元冲甲 元傳 元善之 元松壽 元天錫 元忠 宋璘 宋天逢 宋璿 宋國瞻 宋訥 宋文胄 宋彥琦 宋吉儒 盧仁祐 盧仁綏 盧克清 杜景升 杜英哲 朱悅 朱印遠 朱士雍 朱思忠 徐神逸 徐弼 徐熙 徐恭 徐甄 徐隲 高兆基 高令臣 高孝冲 韓宗愈 韓希愈 韓安仁 韓冲 韓彥恭 韓惟漢 韓文俊 韓康 韓方信 韓脩 韓永 韓光衍 河拱辰 河允濟 河允源 郭興 郭東珣 郭尙 郭垠 郭麟 郭猗龍 姜邯贊 姜民瞻 姜

		<p>著 姜啓庸 姜彰瑞 康日用 文克謙 文益漸 文大 文忠 文冠 曹允通 曹敏修 曹子義 曹益清 曹繼芳 曹孝立 曹精 曹子奇 白彌堅 白頤正 白文寶 白元恒 白得珠 白文節 白光臣 陳俊 陳濬 陳湜 陳溫 田祿生 田元均 田永濡 丁贊 閔漬 閔宗儒 閔令謨 閔公珪 閔仁鈞 閔湜 閔忭 閔霽 閔開 閔思平 閔祥正 閔愉 趙冲 趙云佺 趙仁規 趙璉 趙璋 趙簡 趙通 趙噉 趙良琪 趙永仁 趙扑 趙廉 趙日新 趙位寵 洪子藩 洪彦博 洪師禹 洪師範 洪仲方 洪儒 洪彬 洪仁桂 洪鈞 洪文系 洪灌 洪侃 洪祿適 洪仲宣 洪順 洪福源 庾黔弼 庾應奎 庾碩 庾資諒 庾祿崇 庾行簡 許珙 許綱 許有全 許錦(155)</p>
6	高麗	<p>高麗：許勢修 許邕 許少游 劉冲祺 秋適 吉再 裴玄慶 申崇謙 申淑 黃純益 黃裳 黃守世 康好文 康戡 梁元俊 皇甫瓘 皇甫沆 皇甫倬 皇甫俞義 咸有一 咸淳 咸禹治 魏元凱 薛景成 薛公儉 杜景升 胡宗朝 慶復興 慶大升 辛藏 辛有定 沈諤 雙冀 俞升朝 俞千遇 俞天桂 伍允孚 智蔡文 廉悌臣 楊規 奇子敖 奇虔 張沆 張志道 孫扑 孫億 成汝完 成石璘 成石珣 成石瑢 成石瑢 成聘年 于學儒 房士良 房瑞鸞 魯興 車原頰 邊安烈 邊呂 俛遜 俛長壽 彭祖狄 玄德秀 全輔仁 李子淵 李仲若 李寧 李齊賢 李仁老 李公老 李湛之 李奎報 李瑱 李寶林 李承休 李行儉 李長庚 李兆年 李仁復 李承慶 李藏用 李茂方 李之氏 李淳牧 李晟 李子晟 李公遂(86)</p>
7	高麗	<p>高麗：李達衷 李存吾 李崇仁 李岳 李岡 李公升 李行 李芳實 李資玄 李顥 李敢 李伯謙 李純祐 李資諒 李資謙 李永 李堅幹 李載 李知命 李穀 李穡 李種學 李種善 崔承老 崔凝 崔灑 崔彥摶 崔沆 崔汝諧 崔鴻賓 崔齊顏 崔冲 崔惟善 崔惟吉 崔思齊 崔思諷 崔允儀 崔璣 崔洪胤 崔椿命 崔滋 崔有滄 崔淪 崔誠之 崔文度 崔陟卿 崔得枿 崔宰 崔均 崔允匡 崔惟清 崔謹 崔詵 崔宗峻 崔璘 崔雍 崔瑩 崔閑奇 崔知夢 崔斯立 崔弘嗣 崔碩 崔思全 崔烈 崔守璜 崔濡 崔雲海 崔元中 崔洪烈 鄭襲明 鄭夢周 鄭思道 鄭云敬 鄭允匡 鄭之呂 鄭地 鄭晏 鄭沆 鄭可臣 鄭克溫 鄭顥 鄭璫 鄭誦 鄭樞 鄭習仁 鄭文 鄭世雲 鄭知常(88)</p>
8	高麗 本朝	<p>高麗：鄭臣祐 鄭叙 安文凱 安瑗 安戡 安魯生 安震 安裕 安置民 安軸 安輔 安宗源(12) 本朝：安景恭 安純 安祐(3) 高麗：琴儀 琴克和 (2) 本朝：琴柔(1) 高麗：金富軾 金富但 金富轍 金敦中 金君綏 金漢忠 金永固 金仁鏡</p>

		<p>金克己 金震陽 金仁揆 金景庸 金方慶 金忻 金恂 金永晄 金永熙 金九容 金齊顏 金敞 金士衡 金宣平 金休 金須 金台鉉 金慶孫 金光載 金光輒 金興祖 金周鼎 金續命 金若采 金黃元 金富 金就礪 金文衍 金倫 金子儀 金審言 金上琦 金緣 金縝 金守雌 金祿 金得培 金先致 金得齊 金鳳還 金仇 金謂碑 金希碑 金宗衍 金貂 金存中 金洙 金正純 金怡 金猛 金莘尹 金濤 金長壽 金之岱 金守剛 金坵 金殷傅 金宣弓 金蒂 金峻 金義元 金之錫 金珣 金澤 金允侯 金遷 金孝誠 金庚 金行成 金延壽 尹金剛 尹瓘 尹彥頤 尹鱗膺 尹世儒 尹宣佐 尹威 尹諧 尹澤 尹龜生 尹碩 尹之彪 尹可觀 尹承解 尹徵古 尹莘傑 尹佺 尹頤 尹桓 尹虎 吳學麟 吳世文 吳世才 吳延寵 吳訶 吳大陸 吳珣 朴忠佐 朴寅亮 朴景仁 朴全之 朴瑗 朴仁碩 朴犀 朴孝修 朴挺蕤 朴尙衷(115)</p>
9	高麗 本朝	<p>高麗：朴暹 朴元凱 朴公襲 朴守卿 朴恒 朴述熙 朴英規 朴强 朴綸 朴世通 朴元桂 任元厚 任濡 任君輔 任懿 任景肅 任奎 蔡松年 蔡楨 蔡洪哲 蔡忠順 蔡靖 蔡順禧 蔡璉 禹倬 禹玄寶(26)</p> <p>本朝：鄭道傳 鄭文炯 鄭以吾 鄭笨 鄭陟 鄭誠謹 鄭欽之 鄭甲孫 鄭昌孫 鄭忠樑 鄭蘭宗 鄭光弼 鄭膺 鄭廉 鄭摠 鄭錫堅 鄭麟趾 鄭汝昌 鄭招 鄭佶 鄭之雲 鄭浣 鄭自英 鄭鵬 鄭孝復 鄭希良 黃喜 黃致身 黃守身 黃衡 黃鉉 黃孝源 黃俊良 權近 權遇 權蹈 權踞 權蹲 權健 權敏手 權碩 權柱 權採 權擘 權達手 權弘 權孟孫 權景裕 權五福 權晏 權撥 權檣(52)</p>
10	本朝	<p>本朝：趙浚 趙須 趙岬 趙元紀 趙末生 趙廣臨 趙廣輔 趙光祖 趙之瑞 洪逸童 洪貴達 洪彥忠 洪允成 洪應 洪順福 洪彥弼 洪仁佑 洪裕孫 洪瀚 崔茂宣 崔潤德 崔恒 崔德之 崔敬止 崔淑精 崔致雲 崔應賢 崔婁伯 崔山斗 崔漢公 崔裕 崔倬 崔壽城 崔溥 崔脩 崔淑生 崔命昌 崔萬理 崔霖 宋希美 宋千喜 宋欽 宋麟壽 宋好智 宋希奎 宋世琳 安景恭 安琛 安瑒 安處謙 安處謹 安處誠 安名世 安應世 安純 安瓚 安止 安堅 孫舜孝 孫昭 孫仲墩 尹紹宗 尹淮 尹祥 尹弼商 尹殷弼 尹壽 尹之彪 尹子松 尹自任 尹孝孫 尹欽 尹世豪 朴信 朴葢 朴宜中 朴安身 朴苞 朴堧 朴彭年 朴弘信 朴元亨 朴錫命 朴元宗 朴漢柱 朴世熹 朴薰 朴英 朴閔 朴祥 朴公達 朴遂良 朴紹 朴光佑 朴巨卿(95)</p>
11	本朝	<p>本朝：金子粹 金末 金壽寧 金禮蒙 金孝誠 金克一 金時習 金守溫 金久岡 金原桂 金希壽 金宗瑞 金訢 金礪石 金墩 金紐 金壽童 金麟厚 金</p>

		應箕 金孟性 金允壽 金峙 金從理 金叔滋 金宗直 金宏弼 金淨 金安國 金正國 金振宗 金倬 金絳 金文博 金湜 金胤宗 金世弼 金明胤 金孟 金駿孫 金駟孫 金大有 金克儉 金潛 金淡 金若采 金若恒 金延壽 姜淮伯 姜頌德 姜希顏 姜希孟 姜孟卿 姜謙 姜詞 姜渾 姜景敍 姜應貞 張繼池 (58)
12	本朝	本朝：朴子安 魚有沼 魚變甲 魚孝瞻 韓明澮 韓忠 韓繼禧 具致寬 具文老 具壽聃 孟思誠 咸傳霖 卞仲良 卞季良 卞九祥 林亨秀 林億齡 梁誠之 皇甫仁 俞孝通 俞應孚 俞好仁 盧思慎 盧璋 裴克廉 辛有定 辛碩祖 辛永禧 玄碩圭 周世鵬 奇遵 蔡壽 蔡世英 孔頌 孔瑞麟 曹錫文 曹偉 曹仲 曹植 曹淑沂 李詹 李甫欽 李孟專 李豆蘭 李承召 李集 李仁孫 李克培 李克均 李克堪 李克基 李守恭 李延慶 李浚慶 李孟昉 李叔時 李季甸 李瑀 李坡 李封 李塏 李籽 李膺 李胄 李繼孫 李彥迪 (66)
13	本朝	本朝：張末孫 張玉 成勝 成三問 成希顏 成念祖 成任 成侃 成倪 成世明 成守琛 成守琮 成悌元 成運 車云革 羅湜 羅世纘 徐居正 徐敬德 徐彥 徐勻 柳寬 柳洵 柳季聞 柳廷顯 柳允謙 柳誠源 柳方善 柳順汀 柳藕 柳希齡 柳仁淑 柳庸謹 柳灌 柳希春 柳崇祖 柳廷秀 柳雲 柳子光 申叔舟 申浚 申槩 申鑑 申命仁 申季誠 申澗 申從漢 申用漑 申沆 申末舟 申光漢 申潛 申澹 趙庸 趙胖 (55)
14	本朝 孝子	本朝：李殷 李潑 李堅基 李忠樅 李好誠 李茂 李之剛 李思鈞 李來 李龜 李鼈 李原 李陸 李世英 李穆 李瓊全 李叔蕃 李宗準 李咸寧 李亨元 李達善 李貞幹 李士寬 李繼孟 李瑀 李湜 李石亨 李賢輔 李長坤 李垠 李堰 李苻 李靈幹 李天啓 (34) 孝子：孫順 孫順興 孫宥 金遷 金克一 金乙時 金頌 金德崇 金淑孫 金龜孫 金敬孫 金得仁 金自強 金閑 金石連 金孝良 金弼成 金益濂 金自廉 金敏 金孟做 金石鳳 金粹 金景利 金元進 金文尙 金由性 金卍 金承得 金允孫 鄭聰 鄭承雨 鄭愈·鄭悉 鄭尙仁 鄭玉良 鄭舟臣 鄭繼周 朴氤 朴辰 朴云 朴末山 朴希樟 朴善樞 朴尋 朴矩 朴晋 朴幹 朴由孝 朴暢 朴光廉 朴約之 朴椅 朴有誠 朴世延 朴遂良 朴仁孫 朴世直 朴延守 朴希楠 朴蕃 李申 李祿連 李郊 李官明 李好仁 李自華 李權 李甫 李桂 遂 李閏 李成萬 李成幹 李元絢 李成茂 李植 黃守 黃載 黃信之 趙瑜 趙錦 趙漢 趙珩 崔溢 崔世湖 崔婁伯 崔致安 崔小河 崔夫三 崔碩潤 崔叔箴 林季蕃 林玉山 林棐 林載 林隴 安圭 安堵 安正命 田孝終 田佐明 田終孫 田禧 田漢老 盧俊恭 盧珣 權得平 權居義 權福 權直衡 河友明

		河玄夫 河叔倫 河永澄 許仲民 許調元 許繼道 蔡宏 蔡亨溫 蔡順 蔡安澤 尹安仁 尹殷保 尹仁厚 尹奕 宋滔 宋時興 宋世貞 姜應貞 姜廉 姜克禮 姜安命 全克恭 全謹 全忠用 全彥 梁貴珍 梁好 梁成允 徐稜 徐騰 池夢句 池重海 余孝悌 潘腆 潘碩徹 玉石堅 玉從孫 車達 車舜年 吳俊 吳齡老 高守精 高崇孝 申休(155)
--	--	--

이상에서 보듯이 권별의 『해동잡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권에서 3권까지는 역사편으로 상고기에서 고려까지를 다루고 있다. 내용은 단군에서 삼한까지의 상고기의 왕조 변화를 간략히 적고, 이어 신라의 박혁거세에서 고려 공양왕까지 역대 왕의 업적을 적고 있다. 이어 弓裔와 甄萱를 적고, 外寇로 靺鞨, 契丹, 蒙古, 倭를 적었다. 역사편의 각 왕에 대한 기술에서는 역대 왕의 이름, 계승, 재위년수 등을 정리한 뒤 별도로 ‘○’ 표시를 하고 왕의 업적에 관련된 기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권4에서 권14까지는 인물편으로 신라 66명, 고구려 21명, 궁예 3명, 백제 8명, 고려 484명, 본조 364명, 효자 155명으로, 모두 1,101명이 수록되었다.²⁰⁾ 권4의 삼국시대에는 먼저 왕조별로 구분하고 이어 각 성씨별로 분류하여 대체로 생년 순에 따라 인물을 기록하고 있다. 권4에서 弓裔를 표제로 내세워 王隆, 尹瑄, 阿慈介 3명을 수록한 것은 삼국편에 넣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5 이하의 고려와 조선시대의 경우 성씨별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역사편의 시간 순에 따른 기술과는 다르게 되었

20) 후에 추가된 인원은 모두 제외하였으며, 동일 항목에 나오는 4건은 별개로 계산하였다. 권8과 권10에서 중복된 安景恭과 安純은 별개로 계산하였다. 이수봉이 쓴 해제에 따르면 신라인 62명, 고구려인 23명, 백제인 8명, 고려인 526명, 조선 임란 직전 455명, 총 1,074명으로 계산하고 있다(이수봉, 『해제 해동잡록』, 『해동잡록』, 1986, 3쪽). 이는 추가된 인원을 제외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다.²¹⁾ 권9 정도전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는 대체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나눌 수 있다.²²⁾

『대동운부군옥』에서는 韻目別로 인물과 효자를 배치하였기 때문에 인물을 일목요연하게 보기 어려웠는데, 『해동잡록』에서는 각 성씨별로 분류하고 다시 생물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성씨별 열람은 쉽게 되었다. 그러나 성씨별 배치는 결과적으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역사서의 전형적 모습과는 일치하지 못하게 되었다. 마지막에는 별도로 효자편을 두어 효행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인물과 효자에 대해 『대동운부군옥』에서도 별도의 하부 항목을 두어 소개²³⁾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해동잡록』에서는 인물의 소개와 업적의 기술뿐만 아니라 인물에 관련된 일화를 광범위하게

21) 권5에 이하에 수록된 각 성씨의 순서를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권	수록 성씨
5	權 羅 元 宋 盧 杜 朱 徐 高 韓 河 郭 姜 文 曹 白 陳 田 丁 閔 趙 洪 庾 許
6	許 劉 秋 吉 衷 申 黃 康 梁 皇甫 咸 魏 薛 杜 胡 慶 辛 沈 雙 俞 伍 智 廉 楊 奇 張 孫 成 于 房 魯 車 邊 俱 彭 玄 全 李
7	李 崔 鄭
8	鄭 安 金 尹 吳 朴
9	朴 任 蔡 禹 鄭 黃 權
10	趙 洪 崔 宋 安 孫 尹 朴
11	金 姜 張
12	朴 魚 韓 具 孟 咸 卞 林 梁 皇甫 俞 盧 裴 辛 玄 周 高 蔡 孔 曹 李
13	張 成 車 羅 徐 柳 申 趙
14	李 孫 金 鄭 朴 李 黃 趙 崔 林 安 田 盧 權 河 許 蔡 尹 宋 姜 全 梁 徐 池 余 潘 玉 車 吳 高 申

22) 『대동야승』에 수록된 『해동잡록』에서도 정도전을 기준으로 권9의 고려말기 이전 인물들을 제외하고 정도전 이하 본조 인물만 따로 분리하여 해동잡록6에 수록하였다.

23) 『대동운부군옥』, 『대동운부군옥법례』, 5-6쪽. “一 古今人物 不可盡錄於姓氏之下 故依群玉例 別置人名 分錄于其下 一 韻府群玉不別錄孝烈 皆並附人物名下 似無表章旌別之意 今考勝覽行實中 取其卓異者 特稱孝子烈女 而別錄之 至於忠臣 則有不可不舉以一節論 故不爲別錄 並附於姓氏之下”

수록하고 있다. 인물편의 서술 방식은 인물의 姓名을 기록하고 행을 바꾸어 인물의 본관, 자, 호, 출신지, 과거, 시호 인적 배경을 정리한 뒤 별도로 ‘○’ 표시를 하고 인물에 관련된 기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권별은 역사와 인물에 대한 많은 책을 보고서 정리하였다. 『해동잡록』에서 직접 인용하였던 자료는 각 기사의 끝에 충실하게 문헌의 출전을 쌍행으로 주기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²⁴⁾ 『해동잡록』에 인용된 책과 내용을 통해 임진왜란 이전에 유통하였던 고문헌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해동잡록』에 인용된 자료를 살펴보면 역사편의 삼국시대와 인물편 삼국에서는 정사 자료인 『삼국사기』 외에도 『삼국유사』, 『동명왕편』, 『제왕운기』, 『응제시주』 등 국내 자료, 그리고 진수의 『삼국지』, 『한서』 등 중국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다. 『동명왕편』이나 『제왕운기』 등 조선시대 역사학에서 잘 인용하지 않던 자료에서 인용한 것은 특이하다.

역사편의 고려시대와 인물편 고려에서는 『고려사』를 중심으로 『과한집』, 『보한집』, 『대동연주시격』, 『청구풍아』 등 각종의 문집과 시문·비문 자료, 『경제문감』, 『역옹패설』, 『동현사략』 등 야사와 인물 자료, 『승람』, 『동사찬요』 등 지리와 역사서를 이용하였다.

본조 인물편의 경우에는 『高麗史』, 『東國輿地勝覽』, 『龍飛御天歌』, 『國朝寶鑑』, 『東文選』 등 관부에서 편찬한 자료와 『필원잡기』, 『용재총화』, 『청과극담』, 『소문쇄록』, 『기묘록』, 『병진정사록』, 『태평한화』, 『하곡수

24) 매 자료마다 그 출처를 충실히 밝히고 있는 것은 후대 학문에 나타나는 고증적인 입장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 인물에 대해 평한 내용이 그 후손들에 의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권별은 아예 자료의 출처를 충실히 밝히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언』, 『동각잡기』 등 야사와 『유선록』, 『경현록』, 『사우명행록』 등 인물서 및 각종 文集, 行狀, 祭文, 碑誌文 등을 인용하고 있다. 본조의 경우 야사류의 자료를 다수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광범한 자료들의 열람과 편집은 부친인 권문해가 『대동운부군옥』 편찬을 위해 수집하였던 책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권문해는 「대동운부군옥찬집서적목록」²⁵⁾에서 편찬에 이용한 서적으로 중국 서적 15종, 한국 서적 174종을 열거하고 있다. 『해동잡록』에서 이용된 책명은 대부분 이 목록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부친이 일찍 사망하였지만 권별은 권문해가 『대동운부군옥』을 편찬하기 위해 수집해 두었던 책들을 『해동잡록』 집필을 위한 서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인물전기집으로 김육의 『해동명신록』은 이 책의 편찬 이전에 나왔는데, 권별이 보았는지는 의문이다.²⁶⁾ 왜냐하면 인용서적 가운데 『名臣行迹』²⁷⁾ 혹은 『行迹』²⁸⁾이 있는데, 인용문을 『해동명신록』과 비교해 보면 『해동명신록』에 보이지 않는 구절이 있다.²⁹⁾ 여기서 보이는 『명신행적』 혹은 『행적』은 『대동운부군옥』 목록에 보이는 『海東名臣行蹟』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해동명신행적』은 周世鵬이나 혹은 柳成龍이 편

25) 『대동운부군옥』, 「대동운부군옥찬집서적목록」, 7-12쪽.

26) 그런데 쌍행 주기에 나오는 『名宦錄』은 『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명환조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 『해동명신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대동운부군옥』, 「대동운부군옥범례」, 6쪽).

27) 『해동잡록』 상, <태조왕건>, 203쪽. 『해동잡록』 상, <예종> 268쪽. 『해동잡록』 하, <윤상> 99쪽.

28) 『해동잡록』 중, <길재>, 129·131쪽. <정광필>, 572·573쪽. <정렴>, 578쪽. <정지운>, 588쪽. <정봉>, 591쪽. 『해동잡록』 하, <박상>, 128쪽. <김시습>, 159쪽. <김인후>, 174쪽. <김안국> 213쪽. <한명회> 286쪽. <조위> 346쪽. <조식> 362쪽. <이자> 389쪽. <정수침> 446쪽. <서경덕> 485쪽. <유우> 498쪽. <이황> 551쪽.

29) 김육, 『해동명신록』.

찬하였던 명신언행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용 문헌 가운데 라사, 구사, 제사를 별도의 책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三國史記』 「본기」의 신라, 고구려, 백제를 의미하며, 려사는 『고려사』를 의미한다.³⁰⁾ 고려 시대를 다룬 홍여하의 『彙纂麗史』는 참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³¹⁾

한편 학문이나 절의로 저명한 인물의 경우에는 인물의 시문이나 글을 별도로 인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의 경우 黃俊良은 주세붕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서간문을 수록하였다.³²⁾ 朴彭年은 시문과 〈雙淸堂記〉를 수록하였다.³³⁾ 周世鵬은 〈奉安文成公祭文〉을 비롯하여 〈竹溪別曲〉, 〈竹溪辭〉, 제문, 가사, 후토문 등을 별도로 수집하여 수록하였다.³⁴⁾ 成三問은 〈八駿圖銘〉을 비롯하여 절의를 보여주는 시문, 저술의 서문, 차운시 등을 소개하였다.³⁵⁾ 李滉의 경우 다수의 시문을 수록하고 묘갈명과 〈陶山記〉를 수록하였다.³⁶⁾ 이러한 자료의 소개는 해당 인물을 현창하려는 의도로 자료를 널리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³⁷⁾

30) 『대동운부군옥』의 범례에 따르면 “一 我國之史 有三國史東國通鑑史畧及高麗本史 乃一書而異名 所記之事 互相重疊 故三國時事 則合稱羅史句史濟史 高麗時事 則稱麗史(『대동운부군옥』, 「대동운부군옥범례」, 6쪽)”고 적고 있다. 『대동운부군옥』의 편찬 범례에 비추어 볼 때도 권별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출전을 명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1) 홍여하(1621-1678)의 행장(『木齋先生文集』 권11, 「附錄」, 〈行狀〉)에는 1639년 『휘찬여사』를 편찬하기 시작하여 몇 년 지나 완성한 것으로 적고 있으나 권별이 이 책을 본 것으로는 보이지 않다.

32) 『해동잡록』 중, 〈황준량〉, 608쪽.

33) 『해동잡록』 하, 〈박팽년〉, 110쪽.

34) 『해동잡록』 하, 〈주세붕〉, 313쪽.

35) 『해동잡록』 하, 〈성삼문〉, 404쪽.

36) 『해동잡록』 하, 〈이황〉, 570쪽.

37) 자료의 정제되지 않은 인용은 이 책의 체계적이지 않은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이 책은 간단한 인물사건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수록은 오히려 해당 인물의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Ⅲ. 『해동잡록』의 내용과 역사인식

1. 상고사인식

권별은 檀君朝鮮 - 箕子朝鮮 - 衛滿朝鮮 - 三韓 - 新羅 駕洛 高句麗 百濟 - 高麗의 순으로 왕조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 권별이 파악하고 있는 역사의 전개과정을 대체로 알 수 있다. 그런데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조항에서는 다양한 사서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하고 있다. 삼조선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나온 사서 가운데 가장 많은 정보량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단군에서부터 고려까지 일원적인 역사체계가 수용되면서 사략형 사서에서는 단군과 기자가 역사기술에서 가장 앞서서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이 단군을 앞세운 것도 이러한 사략형 사서의 편찬 경향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단군의 기사에 대해서는 웅녀가 인간이 되기를 축원한 태백산은 묘향산으로, 사망하였을 때 매장지를 江東縣으로, 후손들이 기자를 피하여 이도한 곳을 文化로, 해부루를 단군의 아들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년이 대등함을 적은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군의 수가 1천년이 넘었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인간의 수명에 비추어 비판하고 그것은 享國한 연대로 보았다.³⁸⁾ 이전 기록에서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던 江華島와 관련된 단군 기록을 수집하여 배치하고 있는 점, 단군 기록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자 한 점, 단군 전승을 통해 조선 국가의

38) 「해동잡록」 상, 15쪽. “當堯之時 人文昭宣 至于夏商 世漸澆薄 人君享國久長者 不過四五十年 人壽上壽百年 中壽六七年 下壽四五十年 安有檀君獨壽千百年以享一國乎 知其說之誣也 若檀君享國久長 扶婁往會塗山 則享雖我國國文籍不備 中國之書豈無一語及之乎 檀君相傳享國之數 千四十八年者無疑矣 權文忠公近詩曰 聞說鴻荒日 檀君降樹邊 傳世不知幾 歷年曾過千 蓋言其傳世歷年之久也”

유구성을 드러내려고 한 점 등은 특징적이다.

기자에 대해서는 이전 사서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기사의 끝에는 기자의 本姓이 子氏, 이름이 須臾라는 『漢書』를 비롯하여, 『東國通鑑』 「外紀」, 『詩林論說』, 『續蒙求』, 『龍飛御天歌』, 『帝王韻紀』, 『北史』, 『勝覽』, 『西京雜錄』, 『應製詩註』, 陳壽의 『三國志』, 『徐氏家譜』, 『詩林考證』, 『高麗史』 「樂志」, 『朝鮮賦』, 『筆苑雜記』 등 다양한 인용문헌을 제시하고 있다. 기자가 평양을 중심으로 교화를 베푼 것으로 정리한 점, 기자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고 있는 점 등은 특징적이다.

위만 조선에 대해서는 燕人이었던 衛滿이 箕準을 쫓아내고 평양을 근거로 朝鮮 명칭을 계승하여 88년을 전세한 것으로 적고 있다.³⁹⁾ 한나라는 위만을 점령하고 그 자리에 樂浪(平壤), 臨屯(江陵), 玄菟(咸鏡), 眞番(地名)을 설치한 것으로 적고 있다. 이전의 사서들은 사군과 이부를 모두 별도로 표출하여 우리 역사에서 기술하였는데 권벌은 이를 위만조선의 아래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붙여 두었다.

삼한에 대해서는 기준이 위만을 피해 금마군에서 개국하였으며, 지금의 평안도로 비정하고 있으며, 진한은 경상도로 진의 망인이 들어 온 것으로, 변한은 지금 전라도로 비정하고 있다.⁴⁰⁾ 마한을 평안도로 비정한 것은 최치원의 설을 받아들여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등 고려시기 사

39) 『해동잡록』 상, 20쪽. “燕人也 逐箕準 據王儉城 平壤 仍號朝鮮 漢惠帝時 遼東太守約滿爲外臣 得以兵威財物 侵降其傍小邑方數千里 傳子至孫右渠 誘漢亡人滋甚 未嘗入覲 辰國欲入朝 壅闕不通 右渠遂不奉漢詔 漢武帝 元封三年 遣濟南太守公孫遂來征 相路人等謀殺右渠降 傳世凡八十八年”

40) 『해동잡록』 상, 21-22쪽. “馬韓 箕準避衛滿之亂 浮海南奔金馬郡 開國號曰馬韓 溫祚并之 今平安道 辰韓今慶尙道也 秦亡人適韓國 韓人割東界以與之 是爲辰韓 赫居世起於其地 相呼爲徒 有似秦語 故名爲秦韓 崔致遠云 辰韓本燕人避來者云 統國十二 下韓今全羅道也 立國於韓地 不知始祖年代 古記云 國於弁山之下 故弁韓 至新羅始祖時 以國投降 後其地皆爲百濟所有”

서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하였던 의견인데⁴¹⁾ 권별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등 자료를 보고 있어 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삼국에서는 신라를 앞세워 모두 설명한 다음 가락, 고구려, 백제의 순으로 기술하고 있어 신라 중심주의가 관찰되고 있다. 신라 통일을 별개의 시기로 설정하지 않고 혁거세에서 경순왕까지 모두 다루었다.

사군이부를 위만에 붙여 간략히 적고 바로 삼한 삼국으로 적고 있는 것, 통일신라를 설정하지 않고 신라를 모두 적고 이어 고구려와 백제를 적은 것은 『해동잡록』에서 보이는 기술 방식이며 이러한 기술은 한 세대 뒤인 영남지역 퇴계학파의 이유장이 편찬한 『동사절요』의 서술 방식과 유사하다.⁴²⁾

그리고 고려 끝에는 궁예와 견훤을 부기하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반역전에 해당한다. 권별은 『해동잡록』 역사편에서 단군에서 고려에 이어지는 정통 왕조를 밝힌 것으로 기자 - 마한 - 신라 정통의식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성에는 16세기에 나타났던 『표제음주동국사략』, 『동사찬요』 등 당시 유행하였던 사략형 사서의 형태가 이 책의 편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제음주동국사략』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는 국내에서 나온 자료로서 기자의 기술에서 기자의 이름을 須由라고 적은 것은 『표제음주동국사략』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점, 위만

41) 박인호, 「고려시기 사서에 나타난 역사지리인식」,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 이회, 2003, 114쪽.

42) 李惟禕(1625-1701)은 『東史節要』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전개과정을 조선(단군·기자·위만), 삼한(마한·진한·변한), 신라, 고구려, 백제, 부 가락국, 대방, 후백제로 기술하고 있어 한 세대 이전의 선배학자인 권별의 『해동잡록』 역사편 기술과 매우 유사하여 『해동잡록』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이유장, 『동사절요』, 『孤山先生文集』 地, 1990). 이유장의 『동사절요』에 대한 연구는 민현구, 「동사절요에 보이는 역사인식」, 『공자학』 12, 한국공자학회, 2005 참조. 다만 이 논문은 『동사절요』에 영향을 준 책으로 『표제음주동국사략』을 크게 언급하고 있으나 오히려 권별의 『해동잡록』이 더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에 사군 이부를 포함시켜 적은 점, 삼국을 혼합하여 적지 않고 분립하여 적은 점, 통일신라 시기를 설정하지 않고 혁거세에서 경순왕까지 모두 적은 점 등을 들 수 있다.⁴³⁾

상고기 국가의 기술에서는 역년과 연혁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으나 삼국의 기술에서는 쌍행으로 지리와 역년을 적고 각 왕들의 업적을 적고 있다. 권벌은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므로 왕조의 기술에서는 국왕을 표제로 내세워 기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왕을 기술할 때 신라의 경우 고유한 지배의 칭호를 붙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稱王하고 여왕인 선덕은 善德女主, 진덕은 眞德女主, 진성은 眞聖主로 기록하였으며, 또한 고려 말 기사에서 우왕과 창왕을 기술하면서 辛禰와 辛昌으로 적고 공민왕 뒤에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다. 이는 『동사찬요』의 서술을 수용한 것이다.⁴⁴⁾

『해동잡록』 역사편의 고려 왕조 기술을 보면 『고려사』의 각 기록들을 충실히 이용하여 각 왕대별로 제도의 실시와 대외적인 발전 등은 충실히 기록하고 있다. 사상적으로는 유학을 중시하고 이단을 배척한 것을 칭송하고 대신 왕이 도참이나 이단에 빠지거나 주색에 빠졌을 때는 나라가 화를 입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역사를 통해 교훈을 주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왕이 노역을 강제하거나 살인을 함부로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후 하늘의 견책이 있음을 통해 왕의 패덕적 행위에 대한 경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고려 왕의 사망 직전에 있었던 異蹟 발생은 각 왕대 말에 수록하여 왕의 승하가 매우 큰 사건임을 보이고 있다.

43) 유희령, 『표계음주동국사략』, 계명대소장본; 『표계음주동국사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44) 오운, 『동사찬요』, 한국사서총간1, 여강출판사, 1986.

그런데 권별은 고려말의 기사에서 우왕의 즉위에 대해 이상 조짐을 제시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왕위계승임을 보이려고 하였으나 왕위 계승은 공민왕에서 신우, 신창을 거쳐 공양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적고 있으며, 국왕으로서의 정치 행위도 빠뜨리지 않고 수록하고 있고, 또한 즉위한 이후의 일은 바로 신왕의 일로 적는 등 실제 정치가 행해지고 군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려 뒤에 궁예와 견훤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신라, 고구려, 백제에서 정통인 신라를 앞세우고 고구려와 백제는 뒤에 적고 있듯이 후삼국 쟁패에서 고려가 정통이 되면서 궁예와 견훤을 부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궁예와 견훤의 기술에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주로 수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해동잡록』 역사편의 서술은 영남지역에서 유행하였던 16세기 초의 『표제음주동국사략』·『동사찬요』와 17세기 후반기의 『동사절요』와 『동국통감제강』 사이에 위치하는 사학사적 위상을 차지한다. 예천에서 거주하였던 권별로서는 일찍이 영주에서 간행되었던 유희령의 『표제음주동국사략』은 충분히 구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⁴⁵⁾ 내용상으로도 유사한 측면이 나타난다. 또한 오운의 『동사찬요』의 사론을 인용하고 있어, 역사를 보는 인식에서도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⁴⁶⁾ 그리고 곧

45) 『표제음주동국사략』의 초판본은 영천(지금의 영주)군수를 역임하였던 1524년에서 1529년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본은 영주군수 말년 혹은 대구도호부사로 나갔던 1530년대 중반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초·재판본이 영남지역에서 간행되었으므로 예천과의 학문적 연관성으로 보아 견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동잡록』 〈유희령〉(하, 499쪽. “晉州人 字子罕 號夢窩 我中廟朝登第 官至參議 所撰大東詩林 聯珠詩格 行于世”)에는 『표제음주동국사략』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46) 『동사찬요』의 초판 8권본은 경주에서 간행되었으나 이후 12권본은 1614년 영주에서 간행되었으므로 이들 책 중에 하나를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인물편 〈이색조〉(중, 303쪽)의 직접적인 인용 기록 외에도 삼국의 멸망 후 기사에서 『동사찬요』의 역년에 대한 설명(『동사찬요』 한국사서총간1, 여강출판사, 백제 146쪽, 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유장의 『동사절요』나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은 서로 관련이 있는 내용이나 언급들이 수록되어 있어 이들 서적들은 상호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⁴⁷⁾

『해동잡록』에서는 이어서 外寇로 靺鞨, 契丹, 蒙古, 倭를 기술하고 있다. 아버지 권문해가 임진왜란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벌은 젊은 시절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민족에 대한 적개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권벌에게 있어서 이들은 일종의 오랑캐였으며, 왕조에 일종의 화를 입한 존재인 셈이다. 권벌은 이 이민족들을 외구로 기록하고 또한 이들로부터 동국이 화를 입은 내역을 기술하고 있다.⁴⁸⁾ 그리

구려 150쪽)을 인용 표시는 없지만 그대로 적고 있다. 역년 기사 중 고구려조를 『동국통감』과 『동사찬요』를 비교하면 수정되고 보충된 『동사찬요』의 기사를 적고 있다(상 157쪽, 右高句麗 自始祖東明王 高朱蒙 年二十二歲 以漢元帝建昭元年甲申都卒本扶餘 國號高句麗 在位十九年 瑠璃王癸亥移都國內城 山上王癸亥移都丸都 東川王丁未移都平壤 故國原王辛丑復都丸都 癸卯移都平壤東黃城 長壽王丁卯移都平壤城 平原王丙午移都長安城 寶藏王戊辰 唐高宗總章元年 唐兵合新羅兵攻拔平壤而亡 合二十八王 共七百五年 國內城 在鴨綠以北安市城 或丸都城在鴨綠之東北 遼東之東南 東黃城在今西京木覓山中 又平壤亦謂之長安). 백제 기사도 『동국통감』 기사 아래 주석이 추가된 『동사찬요』의 것을 적고 있다(상 195쪽, 百濟自始祖溫祚 以漢成帝鴻嘉癸卯都慰禮城 國號十濟 後改百濟 乙卯移都漢山 近肖古辛未移都北漢山 文周乙卯移都熊津 聖王戊午移都泗泚 國號南扶餘 至義慈王二十年庚申 唐高宗顯慶五年 蘇定方與金庾信合兵滅之 合三十王共六百七十八年 南漢山今廣州 北漢山今漢陽). 이를 통해 보면 『해동잡록』 역사편 기술은 『동사찬요』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박인호, 「동사찬요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지리인식」, 『퇴계학과 한국문화』 40, 경북대, 2007, 42-53쪽).

47) 홍여하가 1670년 『해동잡록』의 발문을 적으면서 동방 史學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점(홍여하, 「附海東雜錄跋」, 『대동운부군옥』, 3쪽), 『동국통감제강』에서 여왕들을 女主로 적은 점(『東國通鑑提綱』, 한국사서총간1, 524-525쪽) 등에서 보이듯이 『해동잡록』은 1672년 편찬된 『동국통감제강』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48) 東國靺鞨之禍, 東國契丹之禍, 東國蒙古之禍, 東國倭禍의 기록에서 이들에 의해 야기된 충돌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해동잡록』의 東國倭禍 부분은 매우 빈약하여 1592년 일어난 壬辰倭亂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또한 뒤의 효자편에도 임진왜란시의 효행사례가 전혀 수록되지 않아서 倭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리 엄밀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 이들 이민족이 일통되지 않았을 때는 두려울 것이 없으나 걸출한 인물이 나왔을 때는 우리와 접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화를 입게 되었음을 적고 이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고 있다.⁴⁹⁾

그런데 비록 권별은 이들을 외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홍여하의 『彙纂麗史』를 비롯하여 허목의 『東事』, 이돈중의 『同文廣考』 등 사서에서 외국을 기술하는 것에서 보이듯이 차츰 당시 지식인계에 이러한 나라들이 관심 영역에 들어오고 있다.

2. 인물인식

4권에서 14권까지는 인물편으로 편성되어 있다. 인물편에서는 업적이 있는 인물들을 망라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에 대상이 된 총 1,101명이라는 인물의 수는 당시까지 나온 책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 수를 수록하고 있다.⁵⁰⁾ 인물의 선정 기준은 대체로 명신·명장이나 절의·효행인, 그리고 도학자와 학자 관료들을 위주로 선정하였다.⁵¹⁾

삼국시대의 수록 인물은 신라인 66명, 고구려인 21명, 궁예인 3명, 백제인 8명으로 왕조별로 적었으며, 대부분 명신, 명장, 화랑, 학자, 도덕적 행위자 등 나라를 위해 충절을 지키고 목숨을 바친 이들을 수록하

49) 『해동잡록』 상, 486-487쪽. “東西夷虜皆散居山澤 未有一統 故天下賴此而無警 如有傑驚者出於其間 而纒統其衆或千或萬 則必爲天下患 故阿保機阿骨打鐵木眞之盛 皆天下之厄運也 況靺鞨 契丹皆與我接境 故遼金之寇亂中華也 我國皆受其禍 已然之迹 吁亦慘矣 幸今 皇明御天 淨洗腥膻 餘種散落 不敢接迹 故小小殘孽 雖或間發 而尙無統合鴟張之變于今二百年餘矣 噫 夷狄中國相爲消長 無異陰陽 今日陰雨之戒 寧可忽乎”

50) 당시까지 나온 인물 자료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고려사』 열전에는 770명이 입전되고 238명이 부전되어 총 1,008명이 수록되어 있다. 김육의 『해동명신록』에는 299명이 수록되어 있다.

51) 예를 들면 고구려의 경우 『삼국사기』에는 남생·남건·남산의 傳이 있으나 『해동잡록』에서는 생략되었다.

었다. 金庾信과 崔致遠의 경우에는 상세하게 인물 이력과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삼국의 인물 가운데 수록된 인물의 수는 신라 인물에 대한 소개가 압도적이고 인물의 소개 내용도 충실하여 新羅 中心的 사고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삼국시대의 왕조별 분류와는 달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고려인 484명, 조선 임란 직전까지 364명을 성씨별로 적고 있다. 인물의 선정도 삼국시대와는 달리 망라하여 적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고려시대의 경우 이인로, 이규보, 이곡, 이색, 최자, 정가신, 안유, 안축, 안중원, 김부식, 이제현 등 고려의 문신들, 최영, 김방경 등 고려를 지키거나 절의를 지킨 무인, 길재, 정몽주 등 고려말 절의를 지킨 인물들을 크게 다루었다.

조선시대의 경우 세조반정에 저항하였던 박팽년, 성삼문 등 사육신과 김시습 등 생육신, 정광필, 황준량, 조광조, 김숙자, 김종직, 김굉필, 김정, 주세붕, 조식, 이언적, 서경덕, 이이, 이황 등 도학에 관련된 학자들, 정도전, 조준, 권근 등 조선전기 관료학자들, 권벌, 최부, 서거정, 강희맹, 조신, 성현 등 조선초 학문을 대표하였던 학자들에 대해서는 인물의 행적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시문까지 수록하고 있다.

이들 인물에 대한 조항의 내용을 보면 말과 행실에서 뛰어난 점을 적고 있는데 내용은 대부분 굳은 절개를 지키거나 직언을 행한 일을 칭송하고 또한 도덕적 행실을 찬양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탐욕스럽거나 절개를 잃은 인물을 소개할 경우에는 인물에 대한 관련 내용을 적더라도 끝에는 이를 비판하는 자료를 덧붙여 놓았다.⁵²⁾ 대체로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보다 인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이어 인물의 업적,

52) 예를 들면 鄭昌孫의 경우도 노산군 복위 모의를 고하여 훈공을 얻은 일을 적고 있으나 끝에는 김시습이 정창손을 비웃는 글을 덧붙여 놓았다(중, 568쪽).

절개와 직언을 행한 행실, 인물에 대한 일화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수록된 인물들을 보면 권별은 비록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서 이 책을 편찬하기 시작하였으나 분량 혹은 자료 수집의 정도로 보면 명신·장군·절의를 지킨 인물과 고려·조선시대의 학문이나 문장을 대표하는 학자들을 현창하려는 의식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인물편의 뒤에는 효자편을 별도로 두고 있다. 효행을 이룬 알려지지 않은 인물 155명을 발굴하여 별도로 내세운 것은 『대동운부군옥』에서 원래 『운부군옥』에서 없는 효자와 열녀 항목을 별도의 표제로 내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효행 논리를 강조하려는 당시 영남지역 퇴계학파의 인식관을 볼 수 있다. 효행조를 보면 생시 때는 부모를 구하거나 병 구완한 사례를 적고 있으며, 사망한 때는 廬墓살이에 대한 것을 적고 있다. 특히 장례의 예절이나 여묘살이에 대한 칭송에서 家禮에 따라 준행한 것을 칭송하고 있어⁵³⁾ 주자가례에 따른 예제가 널리 권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남지역에서 직전에 나온 『동사찬요』에서는 인물의 도덕적 평가를 중시하여 간략한 사략형 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열전」편을 두어 인물을 기술하고 있다. 『동사찬요』 「열전」편에서는 과거의 인물을 정리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잘 다스린 명신, 외침이나 국난 속에 떨어졌을 때 나라를 구한 무장, 참소로 인해 핍박을 당하면서도 충성과 충언을 행한 인물을 특별히 뽑아 수록하고 있다.⁵⁴⁾ 『해동잡록』의 삼국시대 인물에서는 『동사찬요』에 수록된 인물과 중복된 부분이 보이며,⁵⁵⁾ 고

53) 『해동잡록』 하, 「효자」, 〈金建, 金承得, 鄭尙仁, 李好仁, 林玉山, 全謹, 吳齡老〉.

54) 박인호, 「동사찬요 열전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50, 경북대, 2012, 302쪽.

55) 『동사찬요』 8권본 삼국인물 : 乙豆智·松屋旬 高福章 乙巴素 乙支文德 勿稽子 朴堤上 金后稷 實兮 金庚信 金仁問 强首 薛聰 金陽 崔致遠 新羅忠義傳(附 孝烈 - 貴山·

려말 인물에서 절의과 인사들을 소개하는 내용은 『동사찬요』 「열전」에서 절의 신료를 기술하고 또 8권본에서 절의 인사들을 후보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아버지인 권문해는 군자형 선비와 의리정신을 추구하였던 인물이었으며,⁵⁶⁾ 인척관계로 연결되는 김휴는 『해동문헌총록』에서 편찬자의 행적과 선·불선에 따라 해제 대상으로 결정하고 있다.⁵⁷⁾ 권벌의 주위에서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들이나 저작이 모두 엄격한 절의와 도덕관을 인물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이 시기 퇴계학과 내에서 수용되었던 인물 평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해동잡록』은 특정 인물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던 『동사찬요』 「열전」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명신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발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본조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해동문헌총록』은 주된 편

箚項 讚德 奚論 訥催 竹竹 丕寧子 金歆運 盤屈·官昌 匹夫 素那 逼實 金令徹 敬順王 王子 于老 孫順 知恩, 麗濟義烈(密友 紐由 溫達 成忠 階伯 都彌), 安市城主

『해동잡록』 삼국인물 : 新羅(金舒玄 金庾信 金元述 金三光 金允中 金后稷 金忠恭 金听 金周元 金生 金春秋 金仁問 金巖 金信忠 金盤屈 金令胤 金陽 金歆運 金旁他 昔于老 朴堧上 道誥 冬陀川 邯峽許 寶用那 未斯品 箚項·貴山 劉仁願 裂起 王巨仁 居道實 兮 崔致遠 印觀 李純 讚德 奚論 薛鬪頭 任強首 訥催 驟徒·逼實 斯多含 勿稽子 丕寧子 張保阜 貴金 大世 表訓 沈那·素那 官昌 倡郎 元曉 薛聰 罷郎 匹夫 金異斯夫 竹竹 膺廉 調信 鼻荊 孫順 李忿言 崔仇 高句麗(乙支文德 王山岳 高福章 鮮明 松屋勾 發歧 溫達 明臨 荅夫 扶芬奴 得來 怪由 鄒教素 乙巴素 伯固 乙弗 高正義 密友 紐由 倉助利 無恤 安市城主), 弓裔(王隆 尹瑄 阿慈介) 百濟(都彌 階伯 黑齒常之 斯紀 成忠 興首 常永 遲受信)

56) 김주부, 「초간 권문해의 시국비관과 역사인식」, 안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6-43쪽, 45쪽.

57) 金佺, 『敬窩先生文集』 7, 「序」, 〈海東文獻錄序〉. “後之覽斯錄者 必以其人爲先 見其處心之善者而法之 不善者而懲之 行事之是者而則之 不是者而創之 總攬數千載人物臧否 一一反求於吾身 則庶可見讀書之功效 而文章述作 特其餘事耳”

박인호, 「해동문헌총록에 나타난 김휴의 학문세계」, 『선주논총』 9, 금오공대, 2006: 『여현학의 전개와 수용』, 보고사, 2010, 355쪽.

찬 목적이 해제에 있었으므로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소개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해동잡록』은 광범위한 인물 자료 수집으로 전문적인 인물 사전의 형태로 나타났다.

IV. 맺음말 - 사학사적 의의 -

이 책에 대해 높이 평가한 대표적인 인물이 洪汝何(1621-1678)이다. 홍여하는 권별의 부친인 권문해가 편찬한 『대동운부군옥』에 『해동잡록』의 발문을 붙여 놓았다. 홍여하는 권문해의 가학적 전통이 권별에게 이어져서 찬술되었음을 지적하고, 연원이 있는 책은 후세에 전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대동운부군옥』에 별도의 『해동잡록』에 대한 발문을 추가하여 소개하고 있다.⁵⁸⁾

발문에 의하면 홍여하는 중국의 음씨 부자가 『운부군옥』을 편찬하였는데 이에 비견할 수 있는 일이 조선에서 권씨 부자가 『대동운부군옥』과 『해동잡록』을 편찬한 것이라고 극찬하였다. 홍여하는 『대동운부군옥』에 대해 우리나라의 찬술 가운데 제일이라고 평하면서 이어서 죽소 권별이 『대동운부군옥』을 참고하여 내용의 핵심을 뽑아내어 姓 아래에 붙이고, 다른 책의 내용을 보충하여 조목별로 정밀하면서도 풍부하도록 하여 『海東雜錄』을 편찬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 동방의 사학에 보탬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⁵⁹⁾ 홍여하는 『휘찬여사』와 『동국통

58) 홍여하, 「附海東雜錄跋」, 『대동운부군옥』, 3쪽. “竹所公撰述事蹟 詳跋文中 此係先生家學 繼述淵源之書 不可使無傳於後 姑附此文於韻玉書跋文之後 以識之云”

59) 『木齋先生文集』 권6, 「跋」, 〈竹所權公海東雜錄後跋〉 및 「부해동잡록발」, 『대동운부군옥』, 3쪽. “草澗之胤子竹所公 卽其書 拈出事要 繫之姓下 補以他書 條例精瞻 名以海東雜錄 其事實 時有出於史乘之外者 積成累十秩 公方大耋間燕 杜門麾客 披閱是書不少

감제강』을 저술하여 17세기 남인계 역사인식을 대표하였던 인물로⁶⁰⁾ 홍여하의 역사 저술에 미친 권씨 부자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권별의 『해동잡록』이 야사 편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야사자료 집인 『대동야승』에 동일한 책 제목으로 본조의 인물에 대한 부분이 모두 수록된 점에서 볼 수 있다. 근대시기에는 서지 관련 서적들이 일찍부터 『해동잡록』에 주목하였다. 조선총독부 발행의 『고선책보』와 쿠랑의 『조선서지』(1891) 등에서 해동잡록을 소개하고 있으며, 신채호는 『조선사연구초』에서 『해동잡록』을 인용하고 있다. 권별의 『해동잡록』은 비록 정식 출판에 이른 것은 아니었으나 『대동야승』에 수록되면서 널리 알려지고 지역의 가문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⁶¹⁾

이 논문은 편찬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권별이 편찬한 인물 사전인 『해동잡록』의 사학사적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해동잡록』은 크게 역사편과 인물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에서 권3까지 역사편에서는 상고기에서 고려까지를 다루고 있다. 내용은 단군에서 삼한까지의 上古紀의 왕조 변화를 적고, 이어 신라의 박혁거세에서 고려 공양왕까지 역대 왕의 업적을 적고 있다. 이어 弓裔·甄萱과 外寇를 적었다. 권4에서 권14까지는 인물편으로 총 1,101명의 인물 약전이 수록되었다.

休 夫陰竹壘序其子復春韻府時 蓋年八十四歲矣 今竹所公人地事爲壽年 大約相符 似非偶然者 然此書實有補於東方之史學 豈特陰氏父子區區纂緝月露而止哉 上章閏茂三月日 南川洪某書

60) 한영우, 「17세기 중엽 남인 홍여하의 역사서술」,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1989, 135-158쪽.

61) 권별의 『해동잡록』에 다른 글씨체의 추보가 많은 점에 대해 후손가에서는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후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점에서 보아도 지역사회의 가문들에서는 매우 관심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15세기에는 관부에서 편찬한 『東國通鑑』이 역사 책의 전범이었으나, 16-17세기에는 이를 사립과 자신의 관점에서 정리한 사략형 사서가 역사서의 대표적 형태로 나타났다. 그런데 16세기 나온 사략형 사서로는 朴祥(1474-1530)의 『東國史略』과 柳希齡(1480-1552)의 『標題音註東國史略』이 저명하였다. 이어 吳澐(1540-1617)이 『東史纂要』를 편찬하여 영남 지역에서 영향을 미쳤으며, 趙挺(1551-?)이 『東史補遺』를 편찬하였다. 『해동잡록』의 역사편은 이들 사략형 사서와 마찬가지로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여 참조하기 위해 편찬되었는데 역사편의 내용을 구성하고 체계를 잡는 데는 『동사찬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한 세대 뒤에는 퇴계학파의 이유장이 『동사절요』를 편찬하여 이러한 편찬 경향을 계승하게 된다.

『해동잡록』 역사편의 초기 국가 기록에서는 『삼국사기』의 정사 기록 외에 『삼국유사』, 『동명왕편』, 『제왕운기』 등 사서와 『동국여지승람』 등 정부 자료에서부터 족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록을 참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상고사 기술을 풍부하게 하였다. 『고려사』에 근간한 고려 왕조의 기술에서도 부친 권문해가 수집한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었다.

『해동잡록』 인물편에서는 비록 사전적 형태를 취하였어도 인조반정과 이어지는 호란을 겪은 당시 영남지역 선비들의 인물인식이 투영되어서 절의를 지킨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성리학을 도입하였던 인물을 크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인물의 끝에는 효자편을 두어 효행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도덕적이고 윤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직전 시기에 나온 『동사찬요』의 인물 설정이나 도덕적 평가와 유사하다. 그리고 『해동잡록』은 역사편과 인물편을 합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통사가 된다.

『해동잡록』의 단선적이고 정통적인 상고사인식과 절의나 도덕 그리고

효행을 숭상하는 인물인식은 영주에서 간행된 유희령의 『표제음주동국사략』이나 오운의 『동사찬요』 등 역사서나 부친인 권문해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 등장하는 이유장, 홍여하 등 역사학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영남지역 남인학파가 가지는 역사인식과 인물인식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 책이 이후 지역 사회에서 계속 이용되었다는 것은 영남지역 퇴계학과가 가지는 역사인식의 원류적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孤山先生文集』(李惟禕), 『大東野乘』(未詳), 『大東韻府群玉』(權文海), 『東國通鑑提綱』(洪如河), 『東史纂要』(吳滄), 『木齋先生文集』(洪如河), 『木齋集』(洪如河), 『無忝齋先生文集』(鄭道應), 『三國史記』(金富軾), 『昭代名臣行蹟』(鄭道應), 『訥齋先生文集』(崔峴), 『竹所府君日記』(權鼈), 『草簡日記』(權文海), 『草簡集』(權文海), 『標題音註東國史略』(柳希齡), 『海東名臣錄』(金堉), 『海東文獻總錄』(金然), 『海東雜錄』(權鼈), 『彙纂麗史』(洪如河)

김주부, 「초간 권문해의 시국비판과 역사인식」, 안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56쪽.

민현구, 「동사절요에 보이는 역사인식」, 『공자학』 12, 한국공자학회, 2005, 255-276쪽.

박미라, 「대동운부군옥으로 본 초간 권문해의 역사인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83쪽.

박인호, 「고려시기 사서에 나타난 역사지리인식」,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 이회, 2003, 114쪽.

박인호, 「동사찬요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지리인식」, 『퇴계학과 한국문화』 40, 경

북대, 2007, 42-53쪽.

박인호, 「동사찬요 열전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50, 경
북대, 2012, 302쪽.

박인호, 「해동문헌총록에 나타난 김휴의 학문세계」, 『선주논총』 9, 금오공대, 2006:
『여헌학의 전개와 수용』, 보고서, 2010, 332-349쪽, 355쪽.

박인호, 『한국사학사대요』 3판, 이회, 2002, 103-133쪽.

이수봉, 「해제 해동잡록」, 『해동잡록』 상, 태학사, 1986, 3-4쪽.

정구복, 「16-17세기의 사찬사서에 대하여」, 『전북사학』 1, 1977; 『한국근세사학
사』, 경인문화사, 2008, 131-157쪽.

한영우, 「17세기 중엽 남인 홍여하의 역사서술」,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1989, 135-158쪽.

황위주, 「예천 지역의 퇴계학맥」,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서, 2004, 161-
162쪽.

中文摘要

《海东杂录》中所反映的权鳌的历史认识

朴仁鎬

本论文着重探讨了在韩国史学史上权鳌所撰《海东杂录》具有的历史意义。《海东杂录》共有14卷14册，由《历史编》、《人物编》两个部分组成。卷1至卷3，属于《历史编》，这里所收从上古时期到高丽时代。其具体内容，是从檀君到三韩时期的王朝变化，接着从新罗朴赫居世至高丽王朝恭让王事迹，还包括弓裔、甄萱，外寇。卷4至14，属于《人物编》，这里所收共1101名人。

在15世纪，《东国通鉴》成为朝鲜历史书的典范。可到了16-17世纪，广泛出现由士林派按自己的角度将《东国通鉴》重新整理的史略型史书。正因为如此，《海东杂录》的《历史编》就像这些史略型史书一样，是为了简略整理历史时参照目的而编撰的。《历史编》中的有关初期国家的纪录，除了《三国史记》等正史记象之外，还参照《三国遗事》、《东明王篇》、《帝王韵纪》等史书，以及《东国輿地胜览》等官撰书与族谱之类。这带来了上古史纪录的丰富多彩。权鳌的父亲权文海收集的多种资料，后来这些资料《高丽史》为主的高丽王朝的纪录中多被参照。

《人物编》中，反映着经过仁祖反正与胡乱后的当时岭南地区儒学者的人物认识，同时积极介绍并高度评价保全名节和传播性理学的人。篇末，还加《孝子编》而介绍孝行事例，主要是从道德和伦理的角度评价人物。从人物设定与道德性评价方面看，能发现与之前编撰的《东史撰要》类似的认识。如果，我们将这部书的《历史编》与《人物编》加起来的话，这就是我国历史的通史。

《海东杂录》显示对上古史的单线式、正统式认识与对人物重视节义、道德、孝行的特点。这些均受在荣州柳希龄所撰的《标题音注东国史略》、吴沄所撰《东史撰要》等历史书与权文海的影响。不仅如此，这种特点还直接影响到之后的李惟樟、洪如何等历史学家。从这个意义上，可以说《海东杂录》代表当时南人学派的历史认识与人物认识。该书在地方社会不断流行，这个事实告诉我们在岭南地区展开的南人学派历史认识的原貌。

关键词

权鏊, 权文海, 《大东韵府群玉》, 《海东杂录》, 《东史撰要》, 《东史节要》

- 논문투고일 : 2013.1.7. 심사완료일 : 2013.2.7. 게재결정일 : 2013.2.13.